

국내에서 즐기는 이국적 풍경

팬데믹으로 2년째 막힌
하늘길, 해외여행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만 간다.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갈 수 없다면,
국내에서 이국적 풍경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해외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국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1

‘한국의 알프스’ 평창 대관령 목장

끝도 없이 펼쳐진 드넓은
초원 위에서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파아란 하늘에는 양털
구름이 몽글몽글 손에 잡힐
듯하다. 이곳은 스위스
알프스가 아니라 강원도
평창 대관령이다. ‘한국의
알프스’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은 풍경이다.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이 여럿 있지만, 그중 으뜸은 강원도 평창이 아닐까 싶다. 고원이 청량한 초록빛으로 뒤덮이는 봄부터 은빛 설원으로 변하는 겨울까지, 사계절 언제 가도 이국적인 풍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해발 700m 이상 고원이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평창에서도 특히 대관령 일대의 목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스테디셀러 여행지다. 대관령 안에도 크고 작은 목장들이 많지만, 이국적인 풍경을 제대로 즐기려면 이른바 ‘3대 목장’을 찾는 것이 좋다. 삼양목장, 하늘목장, 양떼목장이 그 주인공이다. 3대 목장 가운데 만형 격인 삼양목장은 역사도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가장 크다. 그만큼 다양한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해발 850m부터 1천470m까지 대관령 고원에 들어선 삼양목장의 총면적은 약 2천만㎡(600만평).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동양 최대의 목장이다. 먹거리가 부족했던 1972년, 원시림으로 둘러싸여 있던 대관령 일대 초지를 개간하면서 삼양목장의 역사가 시작됐다. 1960년대 최초로 라면을 만들었던 삼양식품의 고 전중운 명예회장은 직접 소를 키워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대관령 일대를 개척해 목장을 조성했다.



동해전망대 맞은 편으로 푸른 초지가 펼쳐져 있다. 삼양목장의 총면적은 약 2천만㎡(600만 평)로 여의도의 7.5배에 달한다.



1 서들을 타고 동해전망대에 내린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2, 3 해발 1천140m에 있는 동해전망대에서는 강릉 시내와 동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젓소와 양이 방목되는 광활한 목초지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 초지다. 이곳에서 유기농 풀을 먹고 자란 동물들의 분뇨로 유기농 비료를 직접 생산해 다시 땅에 뿌리는 경축순환농법으로 소와 양을 키우고 건초를 재배한다. 목장에서 방목되는 젓소들에게서 짜낸 원유는 삼양

식품이 만드는 유기농 우유와 유제품의 원료가 된다. 제대로 된 축산업을 일구겠다는 꿈으로 출발한 목장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휴식처 역할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목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시작해 하루 1천명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목장 산책은 동해전망대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목장 입구에서 셔틀버스를 타면 약 20분 만에 해발 1천140m에 있는 동해전망대에 도달한다. 전망대에 오르니 경포호와 강릉 시내 너머로 드넓은 동해가 아스라이 보인다. 시야가 막힌 구석 없이 뽕 뚫려 있다. 덕분에 해돋이 명소로도

꼽힌다. 매년 1월 1일 새해맞이를 위해 오전 5시부터 목장을 개방한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초록 빛이다. 청량한 빛깔을 뿜내는 초원이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물결치며 끝없이 펼쳐진다. 답답했던 가슴이 뽕 뚫리는 것 같다. 산등성이를 따라



2



3



1, 2, 3 목책로에는 소와 양이 방목되는 목초지뿐 아니라 야생화가 가득한 꽃밭, 냇물이 흐르는 숲길 등 다양한 풍경이 곳곳에 숨어 있다.

줄지어 서 있는 새하얀 풍력발전기는 목장 풍경을 더욱 이국적으로 만든다. 이 일대에 세워진 풍력발전기는 모두 53기. 고원의 거센 바람 덕분에 강릉시 전체 가구의 60%가량인 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전망대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넉넉하다면 목책로를 따라 걸어 내려오면서 좀 더 느긋하게 풍경을 즐겨 보자. 빠르고 편리한 자동차보다는 느리고 수고롭지만, 차창 밖으로는 볼 수 없는 목장의 속내를 들춰볼 수 있다.

목책로에는 초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을 마주하는 언덕길, 냇물을 가로지르는 숲길, 야생화가 가득한 꽃밭 등 다채로운 풍경이 곳곳에 숨어 있다. 4.5km의 목책로는 '바람의 언덕', '숲속의 여유', '사랑의 기억', '초원의 산책', '마음의 휴식' 등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여유롭게 산책하며 입구까지 내려오는 데에는 2시간 이상 걸린다. 걷기에 자신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겁낼 필요는 없다. 걷다가 힘에 부치면 중간중간 만나게 되는 정류장에서 셔틀버스를 타면 된다.





사방으로 시야가 탁 트인 동해전망대는
일출 명소로도 꼽힌다. 강릉 시내와 경포호 너머
너른 바다 위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장관을 볼 수 있다.



2

1구간에 있는 바람의 언덕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전투 장면을 찍은 곳이다. 언덕을 따라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인증샷을 남기기에 좋다. 바람의 언덕을 지나면 어스레 새소리가 들리는 숲속으로 들어섰다가 다시 광활한 초원이 펼쳐진다. 젓소 네 마리가 초원 위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풍경을 감상하며 목책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온다.

젓소 방목지를 지나면 왼편으로 초지 한가운데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영화 '연애소설'에 등장한 '연애소설 나무'다. 나무 주변 초지에서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 나무 앞에서 셀카를 찍는 연인의 모습에도, 양들에게 풀을 먹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도 여유가 넘친다.

1 해 질 녘 목장 풍경. 석양으로 물든 하늘이 아름답다.
2 영화 '연애소설'에 등장한 연애소설 나무
3 초지에서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1, 2 날쌔 목양견이 양들을 한데 모아 이리저리 몰고 가는 양몰이 공연은 삼양목장에서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3 양몰이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람객이 직접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양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 4 동물체험장에서 만난 타조

삼양목장에서는 아름다운 풍광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양몰이 공연이다. 평창의 3대 목장 중에서도 삼양목장에서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날쌔 목양견이 양들을 한데 모아 이리저리 몰고 가며 노련하게 진두지휘하는 광경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신나게 즐길 수 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직접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양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양 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양몰이 공연장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타조를 구경하고 어린 양에게 우유를 줄 수 있는 동물체험장이 있다. 이곳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동물체험장 안쪽에 있는 온실 카페 '온실'의 아름다운 풍경 때문이다. 유리로 된 온실 앞 야외 정원에 버베나꽃이 한가득 피어 있다. 바람에 일렁이는 보랏빛 물결 사이로 나비 떼가 하늘하늘 춤을 춘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라벤더밭을 떠올리는 풍경이다. 정상에서 한참 걸어 내려오다 지친 방문객이 셔틀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쳐서인지 다른 곳에 비해 인적이 드물었지만, 농치기 아쉬울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다. 버베나꽃을 가까이 다가가 보니 줄기 한 대에 여러 송이의 작은 꽃들이 매달려 있다. 버베나는 7월부터 10월까지 온실 카페 앞 정원을 수놓는다고 한다. 온실처럼 꾸며진 카페 안에서는 삼양목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다.



온실카페 '순설' 앞 정원에
만개한 버베나꽃

>> Information



운영시간 5~10월 09:00~18:00
11~4월 09:00~17:30

- ▶ 입장객은 목장 내에서 운행되는 셔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 양몰이 공연은 5월부터 10월까지 평일 세 차례, 주말 네 차례 열린다.
- ▶ 화이트 시즌인 11~4월에는 방목을 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셔틀을 운행하지 않고 개별 차량을 이용해 목장 내에서 이동할 수 있다.



>> 둘러볼 곳



[하늘목장 제공]

+ 하늘목장

대관령 삼양목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하늘목장은 2014년 일반에 개방된 목장이다. 개방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목장이 조성된 것은 1974년이니 삼양목장에 비해 역사는 그리 뒤지지 않는다. 하늘목장은 대관령 최고봉인 선자령과 맞닿아 있다. 목장 정상에서 약 40분만 걸으면 선자령에 닿는다. 목장 입구부터 선자령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비롯해 다양한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트레킹 하기에 좋다. 하늘목장의 트랙터 마차는 이곳 풍경을 더욱 이국적으로 만드는 명물이다. 트랙터가 끄는 32인승 마차가 목장 입구에서 하늘마루 전망대까지 방문객을 실어나른다. 목장 내에서는 체험 승마와 승마 트레킹도 즐길 수 있다. 겨울에도 양과 말을 방목해 동물들이 눈밭에서 뛰노는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운영시간 동절기(10~1월) 09:00~17:30, 하절기(4~9월) 09:00~18:00



[대관령양떼목장 제공]

+ 대관령양떼목장

2000년부터 관람객을 받은 대관령양떼목장은 삼양목장이나 하늘목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 해발 850~900m의 구릉에 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목가적인 풍경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초지 한가운데 있는 움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영락없는 알프스 풍경이다. 경사가 완만한 산책로는 모두 1.2km 거리로 한 바퀴 둘러보는 데 약 40분이 걸린다.

운영시간 11~2월 09:00~17:00, 3~10월 09:00~17:30, 4~9월 09:00~18:00, 5~8월 09:00~18:30



평창에서 만나는
프랑스식 정원

강원도 평창 진부면, 오대산 월정사로 향하는 길에는 이국적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또 하나 있다. 켄싱턴호텔 평창에 딸린 ‘켄싱턴 가든’이다. 2013년 10월 오픈한 ‘켄싱턴 가든’은 프랑스식 정원 특유의 조형미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호텔 내에 위치한 정원이지만 그 규모가 6만7천㎡(2만여평)으로 상당히 크다. 정원 한쪽 끝, 정자처럼 생긴 전망대는 정원 내 최고의 포토존이다. 아름다운 ‘자수 정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자수 정원’은 프랑스 중서부 루아르강 유역에 있는 빌랑드리성의 르네상스 양식 정원을 본떠 조성했다고 한다. 꼼꼼하게 재단된 수목이 만들어 낸

기하학적 패턴이 땅 위에 그려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프랑스 고성의 정원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풍경이다. 자수 정원 주변에는 드넓은 잔디밭과 오리 떼가 노니는 연못이 있어 운치를 더한다. 산책하기 좋은 느티나무길과 은행나무길도 있다. 호텔 안에 위치한 정원이지만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무료로 정원에 들어가 아름다운 풍경을 누릴 수 있다.

프랑스 중서부 지방 빌랑드리성의 르네상스식 정원을 본떠 만든 켄싱턴 가든



#2

대청호가 품은
천상의 정원

옥천 수생식물학습원

많은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의 아름다운 집, 꽃향기가 가득한 너른 정원. 삭막한 도시살이에 지친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어봤을 직한 꿈이다. 대청호의 비경을 품은 수생식물학습원은 다섯 가구가 모여 이런 꿈을 실현한 곳이다. 이들이 19년간 가꿔온 '천상의 정원'은 이제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힐링의 공간이 됐다.

대청호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

대청호는 충청북도 청주시·옥천군·보은군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다. 1975년 착공된 대청댐이 1980년 완공되면서 내륙이었던 옥천에 옥지 속 바다가 생겼다. 총 길이 80km에 달하는 인공 호수가 생기면서 옥천군 군북면과 안남면, 안내면 일대의 마을들이 물속에 잠겼고, 해발고도 200~300m의 야산들은 섬이 되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비경을 만들어냈다. 옥천군 군북면 방아실길에 있는 수생식물학습원은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옥천의 숨은 명소다.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절벽 위 아름다운 저택과 잘 가꾸진 정원이 호수와 어우러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무리 봐도 '수생식물학습원'이라는 정식 명칭보다 '천상의 정원'이라는 별칭이 더 잘 어울린다. 사실 이곳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포도밭이었다. 아무도 찾는 이 없던 호숫가 야산의 포도밭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일군 이는 청주에서 목회를 했던 주서택 원장이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경관농업'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뜻이 맞는 다섯 가구와 함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호숫가 야산을 사서 수천 그루의 나무와 꽃을 심고 집을 지었다. 주 원장은 시민단체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환경 보호에 앞장서 온 환경운동가이기도 하다. 그가 이곳에서 주로 재배해 온 것은 수련과 연꽃을 비롯한 수생식물이다. 대청호가 청주, 대전과 저 멀리 전라북도 지역까지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인 만큼 물을 정화하는 수생식물이 제격이

다 싶었다. 2008년에는 충청북도 교육청이 이곳을 과학체험학습장으로 지정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됐다. '수생식물학습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자연스럽게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일반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 2 수생식물학습원 산책로에서 바라본 대청호의 풍경

“바람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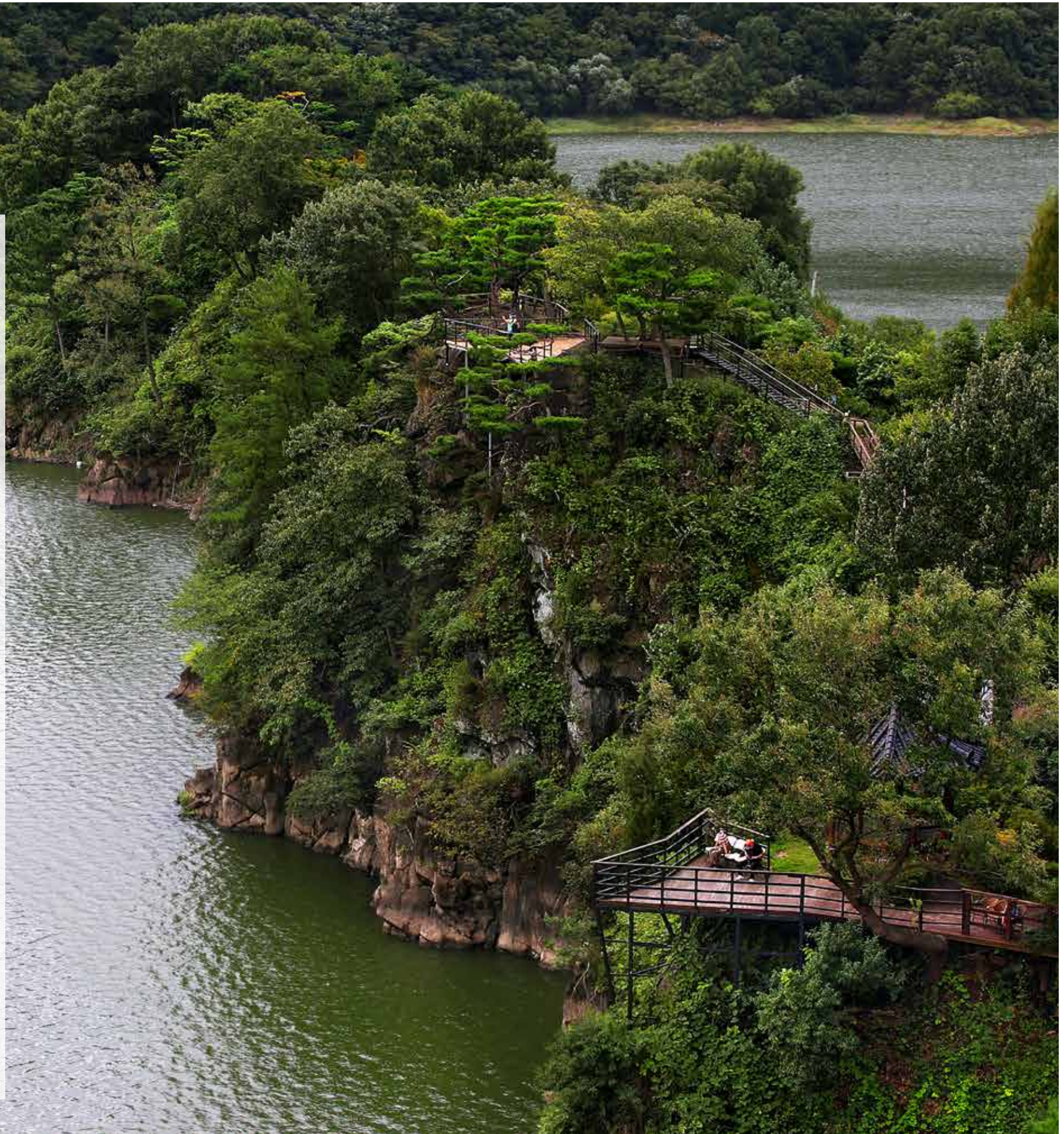


1 호숫가 절벽에 설치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정원을 천천히 둘러보는 데에는 1시간 30분가량 걸린다. 2 수생식물학습원에 입장하려면 허리를 숙이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3 정원 곳곳에 새겨진 글귀가 눈길을 끈다.

차 두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구불구불한 호숫가 도로로 들어서자 수생식물학습원을 알리는 이정표가 나타난다. 수생식물학습원, 천상의 정원, 내적 치유센터. 이정표에 쓰여있는 여러 명칭이 이 공간이 해 온 다양한 역할을 보여준다. 입구에 차를 대고 나무계단을 올라 매표소를 지나니 ‘좁은 문’이 나타난다. 허리를 한껏 숙여야 들어갈 수 있다. ‘자연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라’는 뜻이란다. ‘좁은 문’은 사람 하나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길’로 이어진다. “여기서는 거북이처럼 걸으세요”, “천천히 더 천천히”, “바람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침묵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꽃과 나무들의 소곤거림을”... 정원 곳곳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의미심장하다. 글귀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길을 걷다 보면 검은 암석으로 뒤덮인 나지막한 언덕이 나타난다. 검은 암석 곳곳에는 크고 작은 자갈이 박혀 있다. 단단한 바위 틈새를 뚫고 피어난 갖가지 화초가 생명의 신비로움을 일깨운다. 이 검은 암석은 포도밭을 정원으로 일구기 위해 땅을 파다가 드러난 ‘흑색 황길리층 변성 퇴적암’이라고 한다. 이 일대가 아주 오래전 바다였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지질자산이다.

‘천상의 바람길’을 따라 넓은 잔디를 한 바퀴 돌면 철제 계단을 따라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꽃산아래 벼랑길’이다. 시간이 멈춘 듯 잔잔하게 흐르는 호수와 푸른 산이 어우러진 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않을 수 없는 풍경이다. 조금 더 걸어가니 검은 암석을 뚫고 나온 암송(巖松)이 눈길을 끈다. 120년을 버텨온 기적 같은 소나무다. 이제부터는 호숫가 절벽에 설치된 데크길을 따라 ‘천천히 더 천천히’ 걸으며 호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 된다.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호수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진다.

수생식물학습원은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 산을 휘감고도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절벽에 난 길을 따라 오르내리며 바라보는 호수의 풍경은 다채롭다. 어떤 높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소나무와 정자가 어우러진, 동양의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풍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언뜻언뜻 보이는 검은 벽돌의 서양식 저택이 유럽 호반의 고성을 떠올리게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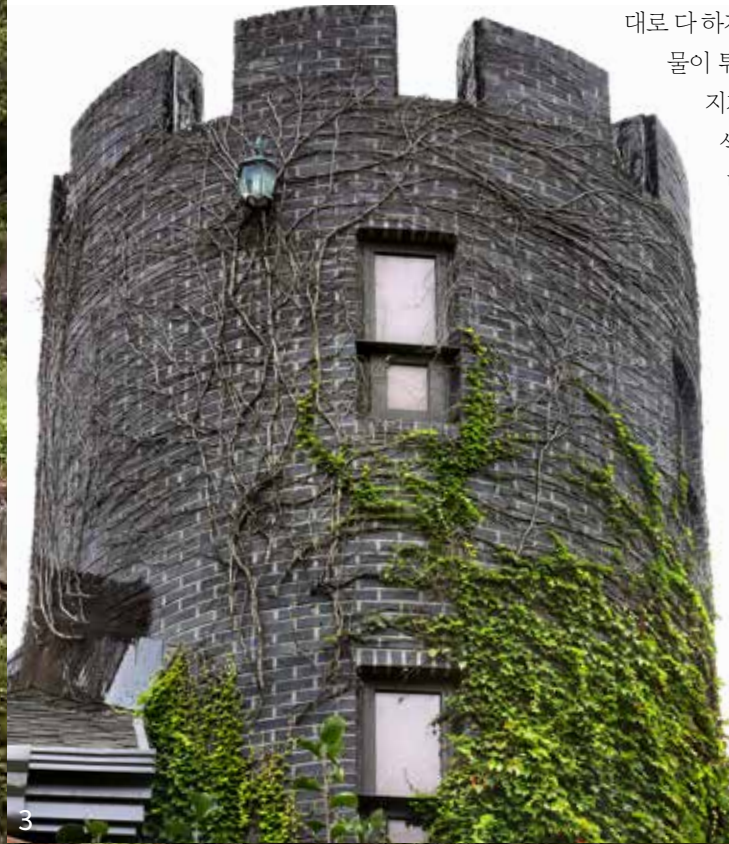


1 수생식물학습원에는 총 다섯 채의 서양식 건물이 있다. 사진은 가장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달과 별의 집'
2 카페로 활용되는 '호수 위의 집' 2층 내부 3 둥근 탑 모양의 전망대에 올라서면 정원과 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학습원 안에는 총 다섯 채의 서양식 건물이 있다. 이곳이 이국적 감성의 여행지로 명성을 얻게 된 것도 이 건물들 덕분이다. 다섯 채 중 세 채에는 이곳을 일군 다섯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두 채는 각각 방문객을

위한 카페와 숙소로 활용된다. 모두 주 원장이 직접 디자인했다. 하지만 세간의 평과 달리 유럽의 고성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지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곳이 중세의 수도원 같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규제가 심해 원했던 대로 다 하지는 못했지요. 검은 벽돌을 택한 것은 건물이 튀지 않고 주변 자연과 최대한 잘 어우러지게 하기 위한 것이예요. 외벽 색을 바위 색에 맞춰 집이 자연 속에 묻히도록 했습니다.”

다섯 채의 집 중 가장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달과 별의 집'이다. 건물 앞뒤로 붙어있는 두 개의 둥근 탑이 동화 속에 나오는 성을 연상시킨다. 둥근 탑은 주변 경관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다. 하지만 전망대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의 문이 잠겨 있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 주 원장이 “겁이 없다면 문을 넘어서 한번 올라가 보라”고 권한다. 좁고 가파른 철제 계단을 아슬아슬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가니 아름다운 호수와 정원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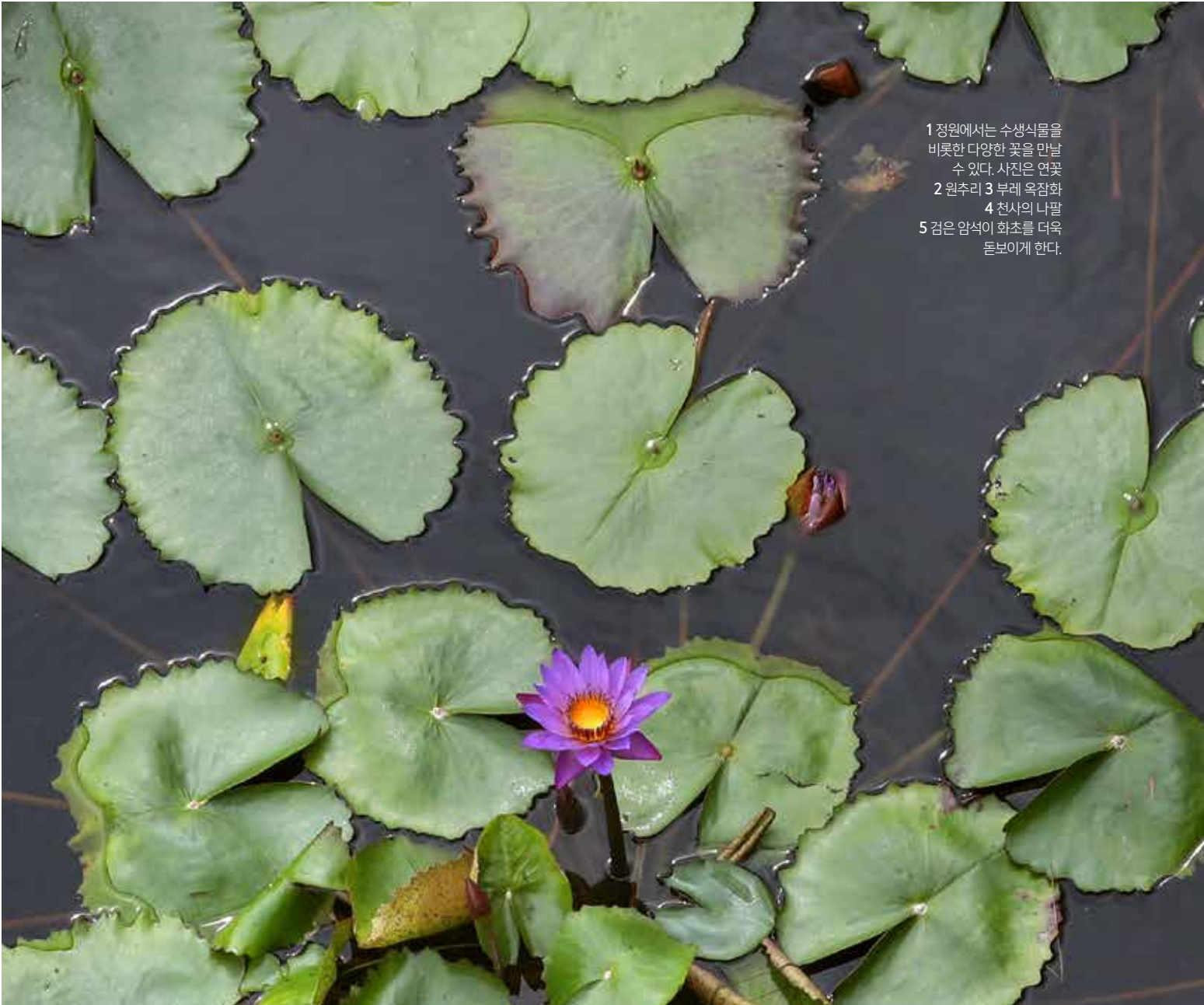




절벽을 따라 난 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있다. 성인 네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이다. 학습원 내에서 유일하게 종교적 색채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안으로 들어서니 십자가가 걸린 창문에 가득 담긴 호수 풍경이 고즈넉하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진다. 예배당 한쪽에는 헌금함이 놓여 있다. '예배당 안에 헌금을 두고 가는 방문객들이 많아 2년 전 어쩔 수 없이 헌금함을 두게 됐다. 뇌병변 장애로 11년째 투병하는 장애인과 하반신 마비로 힘들어하는 아들 등 4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게 전달하겠다'는 메시지가 헌금함에 적혀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모인 헌금을 얼마 전 두 가정에 전달했다고 한다.

예배당을 돌아 출구로 내려가는 길에는 4개의 온실이 있다. 분재원에는 소나무, 모과나무 등 500여 그루의 분재가 전시돼 있고, 실내정원에서는 수련, 연꽃, 부레 옥잠화, 물 양귀비, 파피루스 등 다양한 수생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정원을 한 바퀴 돌아 나올 때는 뒤편 언덕을 따라 난 돌레길로 걸어보는 것도 좋다. 호수와 아름다운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1, 2, 3 성인 네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십자가가 걸린 창을 통해 내려다본 호수 풍경이 아름답다.
4 헌금함에 모인 헌금은 옥천의 장애인 가정에 기부된다.



1 정원에서는 수생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꽃을 만날
수 있다. 사진은 연꽃
2 원추리 3 부레 옥잠화
4 천사의 나팔
5 검은 암석이 화초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1



2



3



4



5

>> Information

이용시간 하절기(3~10월) 10:00~18:00,
동절기(11~12월) 10:00~17:00
일요일 휴무, 1~2월은 휴관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장 인원이 하루
500명으로 제한된다.
예약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안동의 지베르니’ 낙강물길공원

2



1, 2 ‘안동의 지베르니’로 불리는 낙강물길공원의 풍경. 수련 연못과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충청북도 옥천에 대청호가 있다면, 경상북도 안동에는 안동호가 있다. 1976년 안동댐이 완공되면서 생긴, 소양호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다. 안동호 인근의 낙강물길공원은 볼 것 많은 안동에 숨어 있는 명소다. 낙강(낙동강) 물길이 만들어 낸 수련 연못과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프랑스 화가 클로드 모네가 사랑했던 ‘지베르니’의 정원과도 닮았다. 그래서 ‘낙강물길공원’이라는 본래 명칭보다는 ‘안동의 지베르니’ 혹은 ‘안동 비밀의 숲’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안동 시내에서 낙동강 물길을 따라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동의 대표 여행지인 ‘월영교’가 나온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안동댐과 그 너머 너른 안동호를 등지고 소담하게 자리한 낙강물길공원이 있다. 메타세쿼이아와 전나무가 늘어서 있는 숲속으로 한발 들어서면 그림에서 본 듯한 아름다운 풍경

이 펼쳐진다. 수련 잎이 동동 떠 있는 연못과 그 한 가운데서 빛을 내며 부서지는 분수, 연못을 가로지르는 아치형 다리와 가지를 늘어뜨린 나무들… 지베르니 정원을 옮겨 놓은 듯한 풍경이다. 연못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며 그림 같은 풍경을 충분히 즐겼다면, 안동댐 쪽으로 난 언덕길로 올라가 보자. 단풍나무와 자작나무가 가득한 오르막 숲길 끝에 ‘안동루’라는 이름의 누각이 있다. 누각에 오르면 안동댐 아래로 흘러가는 낙동강 물길이 저 멀리 월영교를 지나 희뿌연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안동루 옆으로 이어지는 안동댐 정상길을 걸어볼 수도 있다. 한쪽으로는 낙동강 물길이, 다른 한쪽으로는 탁 트인 안동호가 두 눈 가득 들어온다. ❶

